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TV 소설 〈청춘예찬〉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순결한 당신〉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아내와 여자〉 30 남희석, 최원정의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05 좋은아침 플러스원 30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감	40 지구촌 뉴스	10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화제의 드라마 드라마 시티(재) 〈1110호 작가 310호 배우〉	11	00 화면해설방송 〈돌아온 일지매〉(재)	00 현장리포트 사람세상(재)
00 KBS 뉴스12	10 KBS 네트워크-창원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슈퍼 VJ 신통방통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10 KBC 생활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스포츠 08/09 V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 〈흥국생명 : GS칼텍스〉	00 인간극장 스페셜 〈대단한 가족〉(재) 30 앙코르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재)	1	35 통일전망대	30 물은 생명이다 스페셜
	10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재)	2	15 희망나눔 무지개	00 SBS 뉴스 10 다큐멘터리 딥 플래닛
25 느티나무(재) 35 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재) 55 새천년 건강체조(재)	50 2TV 스페셜 〈1 대 100〉(재)	3	05 앙코르 MBC 프라임 〈이사장의 땀, 김사장의 눈물〉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역사야 놀자	00 꼬꼬마 꿈동산 25 이주일의 동요 30 천하무적 크레쉬 비드맨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먹티와 잼잼	00 팽이대전 G블레이드 30 성장다큐 〈내마음의 크레파스〉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TV유치원 파니파니 30 활력충전 530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퀴즈쇼 남도愛발견(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30 생방송 무한지대	6	30 MBC 뉴스 50 TV 전국기행 〈부산여행 극과 극〉	25 생방송! KBC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말 겨루기	20 인간극장 〈마이크와 앞치마〉	7	45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05 시사터치 따따부따 15 일일 드라마 〈아내의 유혹〉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00 KBS 8 뉴스타임 40 스포츠 인 스포츠 55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사랑해, 울지마〉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TV 로펌 솔로몬
00 KBS 뉴스 9	55 월화미니시리즈 〈남자이야기〉(첫회)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뉴스 55 월화드라마 〈내조의 여왕〉	55 SBS 스페셜 〈자명고〉
00 가요무대		10		
00 KBS 뉴스라인 30 문화지대	15 미녀들의 수다	11	05 문화콘서트 난장	05 아심만만 2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비바 점프볼	25 생방송 시사 360 55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	12	15 MBC 뉴스 24 35 스포츠센터 프로축구 K리그〈서울:수원〉	15 나이트 라인 45 씨네포트(재)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6:30 세계테마기행 〈시인 김용택이 만난 태국〉
07:10 리틀 프린세스
07:25 워드 월드
07:50 칙칙폭폭 처깅턴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08:30 빠삐에 친구
08:40 달려라! 도라라
08:50 깨미랑 부카채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15 방귀대장 뽕뽕이
09:30 페넬로페, 뭐 할까?
09:35 또또바를 찾아라
09:45 치로와 친구들
10:00 EBS English개국 2주년특집 영어강국 코리아를 위하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1:30 다큐 프라임 〈행복한 섬, 바누아투〉
12:20 EBS 기획시리즈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
13:10 똑똑! 영어놀이터
13:30 이상한 나라의 지니
13:55 야! 러그레츠
14:20 빼꼼 시즌2
14:30 아바타-아앙의 전설
14:55 또또바를 찾아라(재)
15:05 방귀대장 뽕뽕이(재)
15:20 알록달록 콩콩이
15:35 달려라! 도라라(재)
15:45 깨미랑 부카채카(재)
15:55 톰 소여의 모험
16:20 리틀 프린세스(재)
16:35 페넬로페, 뭐 할까?(재)
16:40 찍찍폭폭 처깅턴(재)
16:50 딩동댕 유치원(재)
17:10 워드 월드
17:3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 〉
17:50 〈생방송〉톡! 톡! 보니하니
18:50 빼꼼 시즌 2
19:00 아바타-아앙의 전설
19:25 엄마 찾아 삼만리
19:50 어린이 모험극 〈스파크〉
20:20 퀴즈장사 만만세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생방송〉 EBS 뉴스
21:45 지식채널 e
21:50 다큐 프라임
22:40 요리비전(秘傳)
23:10 다큐 10 + 〈자연다큐 특집-알프스〉
00:00 지식채널 e
00:10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07:00 EBS 포스 〈수학 Ⅰ〉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
08:40 〃 〈과학〉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릭! 사이언스
09:35 TV로 보는 박물관
09:40 EBS 수능 플러스 〈언어영역〉
10:3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내신 6감 〈국어(상)〉
12:50 〃 〈물리〉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국어(상)〉
14:30 〃 〈과학〉
15:20 EBS 탐스런(재) 〈한국근현대사〉
16:10 〃 〈물리 Ⅰ〉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한국근현대사〉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18:00 EBS 포스(재) 〈고전문학〉
19:00 〃 〈수학 Ⅰ〉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물리 Ⅰ〉
21:00 〃 〈일본어〉
21:50 EBS 수능플러스(재) 〈언어영역〉
23: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언어영역〉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학 1학년 〈국어〉
08:40 〃 〈수학 1-1〉
09: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 〈국어〉
10:00 방귀대장 뽕뽕이
10:15 딩동댕 유치원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0:50 또또바를 찾아라
11:00 어린이 모험극 〈스파크〉
12:0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12:40 〃 〈수학 8-가〉
13:20 EBS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 〈국어〉
14:00 EBS TV 중학 2학년 〈도덕〉
15:30 2009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이론편(재)
16:00 독학사 교육 강과(재)
16:3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7:00 EBS 초등 중간고사 기출예상문제 〈국어 3-1〉
17:30 〃 〈국어 4-1〉
18:00 〃 〈국어 5-1〉
18:30 〃 〈국어 6-1〉
19:00 EBS TV 중학 1학년(재) 〈국어〉
19:40 〃 〈수학 1-1〉
20: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국어〉
21:00 EBS TV 중학 2학년(재) 〈국어〉

"남은 인생 무대에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미자 50주년 콘서트 서울 공연 성료… 25일 목포문화체육센터

50년간 이미자(68)의 노래에 위로받은 관객들이 이날만큼은 이미자를 위로했다. 감정이 벅차 순간순간 눈물을 글썽이는 이미자를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보듬었다.

이미자가 2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미자 노래 인생 50년-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공연을 가졌다. 백발에 지팡이를 짚은 노부부, 단체 관람을 온 할머니 관객들 등 3천여 객석을 꽉 메운 이들은 모두 이미자의 노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주인공들이었다.

첫 곡 '동백 아가씨'를 마친 이미자는 "50년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큰 성원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여기에 섰다. 떨리고 두렵지만 박수와 갈채 그 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했다.

'황포돛대', '울어라 열풍아', '유달산아 말해다오', '작별', '꽃 한송이' 등 그의 주옥같은 레퍼토리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1절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동건은 2천100곡을 취입하고 400여곡을 히트시킨 이미자에 대해 "이미자 씨의 25주년부터 사회를 봤다. 25주년 때 '이미자 씨는 태어날 때 부터 가수였고 지금도 가수, 돌아가는 날까지 가수'라고, 30주년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100년에 날까 말까 한 가수'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소개했지만 오늘은 할 말이 없다. 백성으로부터 50년간 사랑받은 건 기적같다"고 극찬했다.

이어 25주년부터 기념 공연 이후 5년 단위로 발표한 기념곡 레퍼토리가 이어졌다.

또 여자의 일생', '기러기 아빠', '섬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서울이여 안녕' 등을 노래했다. 마지막 무대는 50주년 기념 음반에 수록된 50주년 기념곡이자 이미자의 인생을 노래한 '내 삶의 이유있음은'으로 꾸몄다.

이미자의 마지막 인사말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그동안 기쁨도 있었지만 많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는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무대에서 보답하겠습니다. 실망스런 이미자로 남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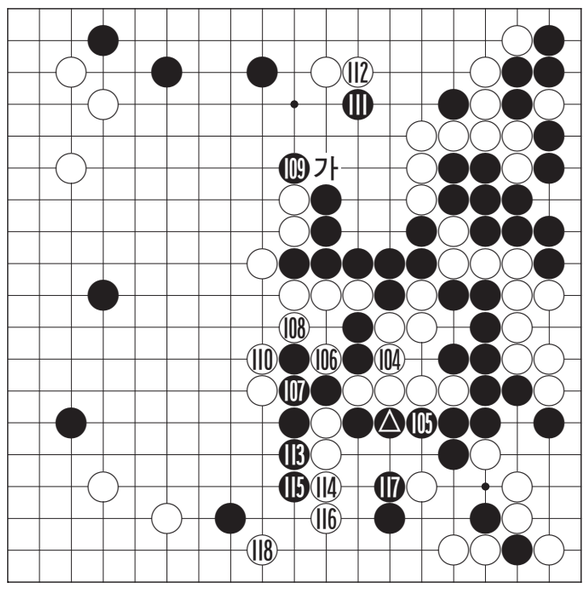
한편 이미자의 50주년 기념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3시·7시 목포문화체육센터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0-0542. /연합뉴스

제4기 원익배 10단전

'백홍석의 고민'

결승 1국 8보(104~118)

白 박정환 3단 黑 백홍석 6단



초반부터 시작된 전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흑 ⓐ로 공배를 메워 백이 곤란한가 했는데 백에게는 104로 가만히 잇는 수가 있었다. 이 수로 무심코 105로 나왔다가는 흑이 104에 두어 요석인 백 석점이 잡히게 되는 것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래서 결국 흑은 105를 선수했고 백은 106으로 먹여쳐 흑 두점을 잡는 교환이 이루어졌다. 결판이 날 듯 날 듯 하다가 또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흑 109는 이제와서 놓칠 수 없는 곳이며 백도 110을 둘 수 있어 서로 불만이 없는 진행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흑은 '가'의 단점과 중앙 흑 넉점이 바쁘기 때문에 백이 성공이라고 보여진다.

백홍석은 고민 끝에 흑 111로 두어 '가'의 단점을 간접 보강한 다음 흑 113으로 밀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박정환은 나이답지 않게 시종일관 초강수로 백홍석을 괴롭히고 있다. 즉각 114, 116으로 움직이고 흑 117을 기다려 118로 달려 끝까지 흑을 추궁하고 있다. 흑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음 3월 11일 辛巳)

子 36년생 수양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48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60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되니 너무 서두르지 마라. 72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매사에 신중 하라. 84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08, 30

丑 37년생 직업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한다. 49년생 주변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히니 중중하게 처신하라. 61년생 좋은 매너에 조신한 처녀가 따르리라. 73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5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 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9, 40

寅 38년생 자신의 발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50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적병이 숨어있다. 62년생 아내와의 불화를 대화로 해결하라. 74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1, 27

卯 39년생 신규 투자는 내일로 미루라. 51년생 사소한 일로 주변인과 시비수가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63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75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12, 45

辰 40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치도 않다. 52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오니 현명하게 처신하라. 64년생 꾸준히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려는 시기다. 76년생 길한 일과 흉한일이 동시에 있다. 행운의 숫자 : 15, 41

巳 41년생 급하면 그르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53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65년생 걱정을 하지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다. 77년생 대화로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 20, 45

午 42년생 희망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 54년생 화려한 과거는 꿈으로 생각하고 자선을 생각하라. 66년생 타인의 시기가 괴롭히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78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29

未 43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다. 55년생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온다. 67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79년생 제사가 불편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중인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07, 36

申 44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56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속위주로 추진하라. 68년생 외형은 줄이고 실리위주로 진행하라. 80년생 오늘은 즐거우니 무엇이 부러우랴. 행운의 숫자 : 14, 27

酉 45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다. 57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그르치니 적극적으로 사고하라. 69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81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 없는 문서로다. 행운의 숫자 : 17, 25

戌 46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58년생 마음이 갈팡질팡하니 정신을 가다듬고 착하게 살아라. 70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어라. 82년생 끈기 있게 진행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 37

亥 47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59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상하니 오늘은 잊어버려라. 71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사랑으로 보살펴라 큰 힘이 나온다. 83년생 가까운 곳에서 협조자가 나온다. 행운의 숫자 : 21,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279>

What I really like is a day off.
나는 정말 하루 푹 쉬고 싶어.

A : I heard the company is planning a big party.
B : Yes, but what I really like is a day off.
A : I don't blame you. You have worked night and day for weeks.
B : Well, I'll go to the party. And then I'll take a couple of days off.

A : 내가 듣기로는, 회사가 큰 잔치를 계획하고 있다던데.
B : 그렇지, 하지만 나는 정말 하루 푹 쉬고 싶어
A : 그럴 법도하지. 자네는 수 주 동안 밤낮으로 일했잖아.
B : 음, 파티에 가봐야지, 그리고 이틀 푹 쉬어야겠다.

* a day off : 하루 휴가
* night and day : 밤낮으로
* a couple of ~ : two~
* 나는 그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정말 듣고 싶어 = What I really like is his speech.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279>

これいくらになりますか
이거 얼마예요

A : これいくらになりますか.
B : 3,000円です.
A : あら, 思ったより高いですね. ちょっと まけて下さい.
B : だめだめ, そうにしたら困ります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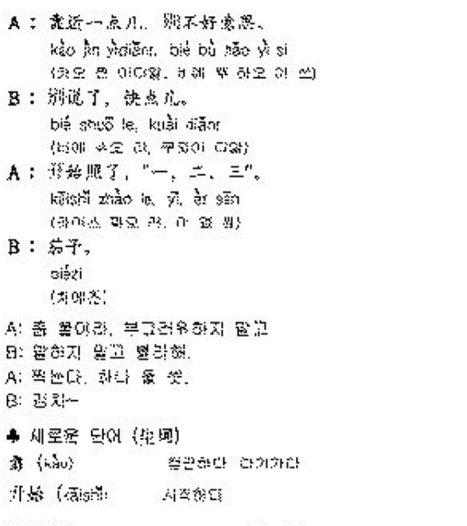
A : 이거 얼마예요
B : 3000엔입니다.
A : 어머, 생각보다 비싸네요. 쫌 깎아주세요
B : 안되요, 안되 그렇게했다간 곤란해요

いくらになりますか(=いくらですか) : 얼마예요
困る : 곤란하다, 어려움을 겪다, 난처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56>

茄子
사진찍을때 사용하는 말 (김치~)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996>

鐘鳴鼎食 (종명정식)
쇠북 종, 울 명, 솥 정, 먹을 식

종명정식(鐘鳴鼎食)은 종이 울리는 소리로 사람을 모아 솥을 벌여 놓고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부귀한 집을 비유한다. 줄여서 종정(鐘鼎)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종(鐘)'이 이름에 많이 사용하는 '종(鐘)'의 전거이기도 하다.

이 말은 당나라 초기의 대표적 시인 왕발(王勃, 650~676)의 '등왕각시서(騰王閣詩序)'에서 유래한다. 등왕각은 현재 강서성 남창(南昌)시에 있는 누각으로 당 고조(高祖)의 아들 이원영이 등왕으로 봉해져 홍주 도독으로 있을 때 세웠다. 고종 2년(675) 중양절(9월9일)에 홍주 도독인 염공이 등왕각에서 주연을 열고 시작(詩作)대회를 열었는데, 마침 베트남에 좌천 된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왕발이 이 연회에 참석하여 즉석에서 시와 서를 지었다. 전반부에는 홍주 일대의 인물과 문물의 번성함한 상황을 그려냈고, 후반부에는 타향에서 객으로 지내며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없음을 풀어냈다. 그 중 전반부에, "채색한 작은 문을 열고/조각한 용마루 얹은 누각을 굽어보니/산과 들은 광활하여 그것이 시야에 가득하고/시내와 못은 광대하여 보는 이의 눈을 놀라게 한다/촌락이 땅에 늘어서 있고/종을 울려 모으고 솥을 걸어놓고 식사하는 큰 집안도 있다(鍾鳴鼎食之家)"라는 표현이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